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107

JCCT 2019-2-13

## 李定稷의 서예론과 韓·中 서예가 비평

### The calligraphy theory of Lee, Jeongzic and Criticism of Korean and Chinese calligraphers

김도영\*

Kim Doyoung\*

**요약** 石亭 李定稷(1841~1910)은 湖南 儒學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詩·書·畫에 능통한 三絶作家이다. 石亭의 서예 활동은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서예이론 및 비평가로서의 학문 활동을 들 수 있다. 石亭은 王羲之를 서예의 典範으로 삼아 勁婉을 眞熟하게 연마하여 婉熟해지면 저절로 조화로운 경지에 도달하여 법고창신 한다고 보았다. 한편, 『燕石山房未定詩藁』 「題書訣詳論五古八首」에서는 石亭이 역대 서예를 연마한 후 느낀 종합적 견해를 以詩論書의 방식으로 중국 역대 서예가를 비평한 五言古詩 8수가 있다. 여기에는 王羲之, 등 중국의 역대 서예가 11인을 선정하여 특징과 장·단점을 비평하였다. 또한, 『圓嶠眞跡』·『宋下眞跡』·『蒼巖書帖』의 題跋을 통해 한국의 圓嶠, 松下, 蒼巖 등의 서예가에 대해서도 나름의 서예비평을 하여 자신의 서예이론을 구축하였다.

**주요어** : 이정직, 연석산방미정고, 석정이정직유고, 서예비평, 법고창신

**Abstract** Seokjeong LeeJeongzic(1841~1910) is a representing scholar in Honam Confucianism and master of three classes, caligography, painting. Seokjeong's calligraphy activities include not only creative activities, but academic activities as calligraphers and critics. Seokjeong uses Wang Hui-ji as an example of calligraphy. And if hard beauty is mastered truly and skillfully and skillfully, it reaches harmony level by itself and is Bugochangsin. Meanwhile, in 「Geseokyousanglon5go8su」 『Yeonseoksanbangmijeungsigo』 there is a Sungosi8su who criticizes Chinese calligraphers. There are including WangHuij criticized their calligraphy by selecting 11 people in China. Also wrote reviews for 『WonkyoJinjeok』·『SonghaJinjeok』·『ChangamSeocheub』. And here, he made his own calligraphy theory by making calligraphy comments about calligraphy artists such as Wonkyo, Songha, Changam in Korea.

**Key words** : LeeJeongzic, Yeonseoksanbangmijeonggo, Seokjeong LeeJeongzicYugo, criticism of calligraphy, Bupgochangsin

#### 1. 서론

石亭 李定稷(1841~1910)은 舊韓末 湖南 儒學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詩·書·畫에 능통한 三絶作家이다.

石亭은 지금의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요교마을에서 태어났는데, 字를 馨五, 號를 石亭 혹은 石亭山人, 燕石이라고도 하였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신학문에

\*정희원,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재학박사)  
접수일: 2019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19년 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5일

Received: January 27, 2019 / Revised: February 13, 2018

Accepted: February 15, 2018

\*Corresponding Author: kdy3019@naver.com

Dept. of the faculty of liberal arts, Yewon Arts Univ, Korea

대한 지적인 갈등을 해소코자 28세에 燕京에 다녀온 유학과로서, 博學과 實證을 중시하는 實事致用的 실학사상과 考證을 통한 시문학에 대한 비평, 그리고 朱子學과 陽明學에 대한 자신의 辨釋을 제시하였고, 서양철학자 칸트와 베이컨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서양철학 연구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石亭은 書藝에 조예가 깊었는데, 法古를 근본으로 한 서예정신과 근본을 추구하는 비평정신으로 楷書는 歐陽詢體, 行書는 王羲之體, 米芾體와 董其昌體, 碑碣名은 顏真卿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경지를 이루었다.

石亭의 서예술 활동은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서예이론 및 비평가로서의 학문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는 『燕石山房未定稿』와 『書訣詳論』을 통해 중국 역대 서예가들의 書論을 모아 이론을 정립하고 서예비평을 하였다. 또한 서예 명가의 眞蹟을 모아 『諸家聚英』을 엮었는데, 이를 보면 전문서예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서화이론을 겸비한 서예비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구한말 역사적 격동기에 師古를 바탕으로 한 石亭 李定稷의 서예론과 한국과 중국의 역대 서예가를 비평한 학문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가 추구했던 서예술의 지향성을 살펴보고, 그의 한·중·역대 서예가 비평이 서예비평사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고찰코자 한다.

## II. 石亭 李定稷의 서예론

石亭은 전주에서 약방을 운영하면서 창작활동에 몰두하던 중, 1894년 동학농민군의 全州城 입성 때 화재로 인해 모든 재산과 저술, 작품 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燕石山房’을 짓고 학문 연구와 후학 지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총25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燕石山房未定稿』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시문, 학문적 성과와 서화가로서 서예론 등을 남겼다. 『燕石山房未定稿 別集』 第2卷의 「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과 「書金石田屏」에는 王右軍, 米南宮, 趙松雪, 董香光 등을 傳習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서예에 관한 예술적 견해를 孫過庭의 『書譜』를 인용하여 ‘眞熟’과 ‘筋力’과 ‘結構’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金道瑩, 『石亭 李定稷 書畫의 文化財的 價値 研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2014, p. 170.)

石亭은 古法을 師法으로 삼아 재능을 단련하고 이러

한 노력이 쌓여야 創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서예관을 강조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옛 것의 학습과 새로운 창신의 통합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어려서부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오직 옛선현으로부터 배우고 연구하여 그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간절해 졌습니다. 한 두해 이전부터 만약 마음과 안목에 정성스럽게 융합되는 것이 있으면 雍容한 붓 끝이 이에 문득 망령되게도 스스로를 믿어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방불하게 되기를 추구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것이 싫증나지도 않았습다.(李定稷, 『石亭李定稷遺藁』 II, 「答黃梅泉」, “自少以來, 所苦心者. 惟求之古人, 冀得彷彿, 至老 而愈篤. 自一二年來, 若有所灌融心目, 而容筆端者, 於是 輒妄自信, 而不知變. 非惟不變, 益求彷彿而不知倦.”)

라며 師古를 중시하고, 師古를 근본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동양은 전통적으로 法古, 尙古, 崇古, 師古라는 개념이 있다. 특히 유가의 경우 완벽함을 갖춘 이상적인 인물과 이상사회 그리고 정치를 거론할 때 흔히 古人, 古之人, 혹은 단독으로 ‘古’字를 써서 그 의미를 비유한다. 여기서 ‘古’字는 기본적으로 ‘무오류의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가에서는 이 ‘古’字에 불변이란 의미를 담아서 이해하기도 한다. 石亭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古란, 단순히 시간상의 되돌림을 통한 무작정 과거로의 回歸인 復古나 尙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本質, 즉 현상과 형식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근본으로서의 항상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金道瑩, 『石亭 李定稷 書畫의 文化財的 價値 研究』, 全南大 博士學位論文, 2014, p. 157.) 이러한 사고는 梅泉 黃玿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法을 추구하면서 재능이 부족한 자는 있지만, 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는 없다. 옛 것을 추구하면서 工巧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만, 옛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工巧함에 이르는 자는 없다.”(李定稷, 앞의 책, 「文變」, “法而不才者有, 未有不法而充其才也. 古而未工者有, 未有不古而造於工也.”)

고 하면서 法古를 통한 創新을 강조하였다. 石亭은 筋骨·精意·風神을 중시 여겼는데 이를 골고루 갖춘 이로서 王羲之를 正法の 모델로써 숭모하였다. 여기에서 筋骨은 筆力을, 精意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風神은 風韻과 神力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를 모두 갖추기는 어렵기에 宋代의 米芾이 筋骨을, 元代의 趙孟頫가 精意를, 明代의 董其昌이 風神을 얻었다고 보았다.(李定稷, 앞의 책, 「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 “書自右軍來, 名世者代相望焉. 而其的然可造右軍門牆者, 有三家. 宋之米南宮得其筋骨, 元之趙松雪, 得其精意. 明之董香光得其風神.”) 즉 후대에 王羲之의 경지를 한 부문이라도 도달했던 三家를 먼저 精熟一家하게 傳習해야 함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石亭은 천부적인 재질(天資)도 중요하지만, 후천적 노력(人工)을 통해 ‘熟’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는데, 글씨는 筋力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結構를 지략으로 삼은 자는 왕희지 뿐이니(李定稷, 앞의 책, “書以筋力爲聖, 以結構爲謀, 而其豐於筋力, 熟於結構者, 王右軍一人而已”) 반드시 筋力과 結構라는 일정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서예는 黑白線의 조화예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線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線이 아니다. 거기에는 骨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筋도 있고, 肉도 있고 血도 있다. 이처럼 筋·骨·血·肉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작가의 생리활동과 심리활동이 기운생동하여 의기와 개성이 넘치는 창작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題書訣詳論五古八首」에서 별도의 [自註]를 통해 설명하였다.

무릇 서예를 연마하는 자는 반드시 굳셈과 아름다움(勁婉)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굳셈을 위주로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 婉熟해지면 저절로 아름다워 질 것이

다.(李定稷, 앞의 책 IV, 「題書訣詳論五古八首」 [自註], “學者須勁婉並至. 然當以勁爲主熟則自婉矣.”)

王羲之는 작위적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굳센 筋骨을 위주로 하여 속기가 없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勁婉을 이루어 書聖으로 숭상되었으니, 후학들도 勁婉에 힘써야 하며 勁婉을 眞熟하게 연마하여 婉熟해지면 저절로 조화로움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石亭은 「題書訣詳論五古八首」의 마지막 [自註]에서, “이전의 비결에 낱알이 의거하여 징험해 보니 眞跡은 모두 圓勁에서 벗어나지 않아 眞力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流麗함이 눈앞에 넘친다 해도 결국 俗筆일 뿐이다.(李定稷, 『石亭李定稷遺藁』 IV, 「題書訣詳論五古八首」 [自註], “歷據前訣, 驗之眞跡. 皆不出於圓勁有眞力, 否則雖流麗溢目, 終是俗筆.”)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참다운 서예는 진숙함과 굳셈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서예비평의 기준으로 삼았다.

### III. 中國의 역대 서예가 비평

石亭은 수 많은 名家들의 서체의 특징과 정신의 장·단점을 분석·비평하며 연마하였다. 『燕石山房未定詩藁』 第5卷의 「題書訣詳論五古八首」에서는 石亭이 역대 서예를 연마한 후 느낀 자신의 종합적 견해를 以詩論書의 방식으로 중국의 역대 서예가를 비평한 五言古詩 8首가 있다. 여기에는 東晉의 王羲之에서 唐代의 歐陽詢, 褚遂良, 顏真卿, 宋代의 米芾, 元代의 趙孟頫, 明代의 董其昌을 거쳐 清代의 翁方綱, 劉墉, 成親王, 何紹基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서예가 11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글씨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평하였고, 마지막 시에서는 자신의 학서과정을 적었다. 그리고 이 시들에 붙인 8개의 自註를 통해 그의 서예미학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드러내었다. 특히 王右軍(王羲之)에 대해서는 筋骨, 精意, 風神이라는 삼박자를 두루 갖추었음을 서론시를 통해 추앙의 글을 덧붙였다.

瀟灑王右君 산뜻하고 깨끗하여 속기없는 왕우군  
淸直冠千秋 맑고 곧음은千秋에 으뜸이라  
陽氣明華辟 양기는 화려한 법을 밝혔고

風神一以適 풍채는 한결같이 견고했네.  
 渾渾泥上印 꾸밈없이 간략한 印印泥요  
 隱隱沙中錐 은은한 錐劃沙이라  
 異哉金石質 기이해라, 金石의 바탕에는  
 文彩自然隨 문채가 저절로 따르나니  
 神龍蜿蜒門 神龍이 天門에서 꿈틀거리고  
 恍惚五色雲 황홀한 오색구름으로 빛나노라.  
 名高已陳迹 높은 명성 이미 지나간 자취여서  
 欲辨徒紛紛 논하려고 하니 하릴없는 뿐이로다.  
 (李定稷, 앞의 책, 「題書訣詳論五古八首」)

위의 詩를 보면, 1~2句에서 그의 서예가 소쇄하고 청직하다는 것은 맑은 精意와 함께 힘찬 骨力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3~4句에서 양기가 아름답고 風神이 견고하다는 것도 그의 서예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면서도 굳세다는 말이다. 5~6句는 그의 필봉이 조화를 이루어 힘차고 굳세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숨겨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7~8句는 단단한 金石에 새겨 있는 그의 서예에는 문채를 발현하는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기이하다고 화자는 감탄하고 있다. 9~10句는 그의 서예가 調和를 넘어 造化의 차원으로 접어든 畫龍點睛의 경지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한 것이다. 마지막 두 句에서는 그의 서예가 것처럼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서단은 쇠퇴를 거듭하며 혼란만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具仕會, 『근대계몽기 石亭 李定稷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p. 249.) 위 글에서 石亭은 王右軍의 서법과 풍채를 印印泥와 錐劃沙로 표현하였다. 印印泥와 錐劃沙는 모두 書家의 藏鋒 筆力法이다. 筆力은 글자의 점과 획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力量美를 가리킨다. 이러한 힘(力)은 주로 線에서 나타나 예술로 느끼는 것이니, 이는 서예에서 필획의 질감이 작가의 왕성한 뜻과 기운에 기초하여 형성된 웅강하고 굳세면서 힘이 있는 품모의 필력감을 갖추게 되면 기운생동하고 기이하여 저절로 아름다워 질 것임을 강조한 말이다.

또한, 초서의 필법인 折釵股를 잘 쓴 顏平原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내렸다.

折釵圓在脚 절채고의 원만함은 다리에 있고  
 屋漏妙生痕 옥루흔의 묘미는 흔적에서 살아있네.  
 挫衄不虛發 격임을 헛되이 표현하지 않으니

卓哉顏平原 탁월하도다, 안평원이어!  
 (李定稷, 앞의 책, 「題書訣詳論五古八首」)

折釵股는 비너다리는 부러져도 구부러진 형태는 그대로임을 말하는데, 서예적 측면에서는 轉折의 용필과 심미를 비유하는 용어이다. 필획을 轉折할 때는 붓이 지면에서 平鋪하며 비틀어 중봉을 이루어야 함을 말함이다. 그리고 屋漏痕은 중획의 용필과 심미를 비유한 용어로서, 중획의 운필은 절대로 끈게 쏟아져 내리지 말고 손과 팔을 미미하게 좌우로 頓挫하며 운용해야 기운생동하다. 石亭은 顏眞卿이 折釵股의 필력과 屋漏痕의 풍운이 모두 뛰어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절제된 기운 가운데 원만한 기세와 신묘한 역량이 탁월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歐陽詢과 褚遂良의 서예비평을 통해 法과 意를 구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歐陽詢과 褚遂良은 동일하게 蘭亭帖을 가지고 연습했으나 歐陽詢은 거기에서 骨格의 法을 얻었고, 褚遂良은 뜻(意)을 얻었다. 비록 완전히 王法을 얻지는 못했지만 晉書의 묘미를 알고자 한다면 두 사람을 傳習해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上同, “歐褚同臨蘭亭帖, 而率更得其骨. 河南得其意. 雖未爲具體, 然欲識晉書之妙, 舍二公無其人矣.”)

서예는 주체의 意를 드러내는 예술이므로, 서예의 奧妙한 경지는 정신을 으뜸으로 치고, 形態는 그 다음으로 여긴다. 法은 결국 意, 즉 작가의 정신과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기에 작가의 학문적 성취와 정신이 붓으로 운용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이를 보면 歐陽詢보다는 褚遂良의 書格을 더 높이 인정하였다.

宋代의 米芾은 骨肉을 표현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力動美있게 표현하였다고 폄평하였다.(上同, [自註], “書法之妙, 專在於筋, 而善書者. 藏之骨肉之際. 未易案識. 故元章欲示之, 人即露出於筆墨之外.”) 또한, 元代에 날렵하고 유려한 松雪體를 이룬 趙孟頫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精微함에 이르렀다고 긍정적으로 비평하였다.(上同, “翩翩趙公子, 努力到精微.”)

한편, 石亭은 明代의 董其昌의 행서에 뛰어났다. 그

로부터 古淡瀟灑하면서 소탈한 정취와 운미를 얻었는데, “董其昌의 서예는 趙孟頫와 다르다. 사람들이 그 嫵媚함을 보고서 더러 松雪體라고 하는데, 董其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李定稷, 『香光帖』題跋, “香光書, 與松雪不同. 人見嫵媚, 以松雪書法迹之則, 失香光眞面目.”)“고 높게 평가하였다. 清代는 翁方剛, 劉墉, 成親王, 何紹基 등 4인을 비평하였다. 翁方剛과 劉墉은 각기 일가를 이루어 그 명성이 온 세상을 휩쓸었지만 用墨에서 약간 風肥하여 누구를 전범으로 하여 私淑했는지 분간을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李定稷, 『石亭李定稷遺藁』 IV, 「題書訣詳論五古八首」, “石庵覃溪, 各成一家, 而用墨稍豐.”) 成親王은 변화하지 못하였다고 당대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맑고 굳세며, 엄격하게 절제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뛰어났다고 높게 평가하였다.(李定稷, 『石亭李定稷遺藁』 IV, 「題書訣詳論五古八首」, “成親王則未脫古人陣迹, 然清勁謹嚴, 却有不可磨滅者.”)

#### IV. 韓國의 역대 서예가 비평

石亭은 국내 작가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는데, 신라의 金生, 조선 중기의 石峯 韓濩, 후기의 圓嶠 李匡師, 松下 曹允亨, 蒼巖 李三晚 등이다. 이는 그가 남긴 필첩인 『圓嶠眞跡』·『宋下眞跡』·『蒼巖書帖』의 제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圓嶠의 필첩인 『圓嶠眞跡』의 뒷부분에 덧붙인 跋文에서는,

우리나라 서예는 金生 이후로 石峯과 圓嶠를 최고로 여기는데, 石峯은 松雪體 라는 틀에 갇혀 버렸지만, 圓嶠는 晉代 이전에 자주 뜻을 두어서 지향점이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 풍기에 얽매었고, 냥호필로 썼기 때문에 외적으로 강한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 점이 서운하다.(李定稷, 『圓嶠眞跡』 跋文, “東方書自金生以後, 竝推石峯圓嶠而, 石峯是松雪窠臼中人, 圓嶠輒有意晉以上, 其志高矣. 但囿於東方風氣, 以狼毫筆作之, 外強之氣, 未化, 此爲一憾.”)

고 비평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金生, 韓石峯, 李圓嶠를 꼽았다. 金生은 石亭이 서예의 전범으로 삼은 王羲之體에 통달했던 통일신라 서예가이다. 하지만, 石峯은 여말·선초 이래로 크게 유행했던 松雪體에 능했으나, 스스로 古法이라는 틀에 갇혀 創新의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반면에 圓嶠의 서예에 대해서는 그가 왕희지 이전의 서예에 뜻을 두고 끊임없이 切磋琢磨 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風氣에 갇혀 狼毫筆로 써서 서체에 변화와 탄력이 강하게 느껴져 외면상으로는 굳셈을 얻었지만, 필선의 표현이 필법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심미경지인 眞熟을 넘어서 造化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품평하였다.

한편, 石亭은 紫霞 申緯의 장인인 宋下 曹允亨의 眞蹟에 題簽을 하고 마지막 장에 跋文을 붙여 宋下 서예에 관한 연원과 서평을 서술하였다.

宋下公은 서예로 한 세상을 風味하였는데, 그 淵源은 圓嶠 李匡師로부터 비롯함이다. 비록 끝이 닳아 없어진 양모털로 만들어진 붓으로도 한때의 興趣를 부치고 그 뜻을 얻었으니, 족히 古人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다.(李定稷, 『宋下眞蹟』, “宋下公, 以書鳴一世. 其源, 自圓嶠公來, 雖以禿狼毫. 寄一時之興, 其得意處, 足以并駕古人.”)

曹允亨이 興趣를 부치고(寄興) 그 뜻을 얻어 서예가로써 이름을 세상에 떨쳤는데, 그 서예는 圓嶠에 근원한다고 긍정적으로 비평하였다. 『蒼巖書帖』에서는 蒼巖의 서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蒼巖이 「瘞鶴銘」을 열심히 임서하였는데, 瘞鶴銘은 梁代 刻石으로써 커다란 글씨로 쓴 장엄하고 강건한 필운과 생동감있는 호방함이 압권이다. 蒼巖이 瘞鶴銘을 근본으로 하여 독창적인 서체를 이루어서 磨滅되지 않았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李定稷, 『蒼巖書帖』, “蒼巖書自瘞鶴銘, 變相而來, 獨開門戶七十年臨池功, 有不可磨滅者, 石亭題.”) 또한, 蒼巖은 만년에 이르러 자기 나름의 서법을 체득하여 홀로 문호를 열었으며, 이후 아호를 蒼巖이라 고치고, 신묘한 경지를 쫓아서 조화를 이루었다.(李定稷, 『蒼巖書帖』, “晚乃自出機軸, 獨開門戶, 改號蒼巖, 遂造神境”)고 蒼巖의 法古創新의 예술정신에 대해 후한 비

평을 하였다.

### V. 결 론

韓·中 역대 서예가들에 대한 비평에서 보듯이 石亭은 단순한 실기 중심의 서예가가 아니라 학문과 기예를 함께 겸비한 서예가이자 자신만의 예술철학을 확고하게 견지했던 서예비평가였음을 알 수 있다. 石亭의 서예론은 그 이면에 오직 '法古'와 '濫故'을 통한 창신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복고주의를 표방했던 石亭의 서예관은 과거의 서예가 아닌 '現在의 書藝', 法古를 기반으로 한 '創新의 書藝'를 의미하며, 擬古의 사유가 아닌 自得의 사유로 말미암은 주체정신의 발휘이다.

石亭은 王羲之를 典範으로 하여 특히 米芾에게서는 筋骨을, 元代之 趙孟頫에게서는 精意를,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비슷한 서체를 보이는 董其昌에게서는 風神을 얻고자 하였다. 주로 전통적인 帖學派 계열의 楷行 계통의 서체나 서풍을 견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전통에 입각한 서예론을 주창하였다.

石亭의 서예비평은 주로 중국의 역대 서예가에 대한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의 圓嶠, 松下, 蒼巖에 대해서도 나름의 품평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그릇된 서풍에 日新을 요구하며 王羲之의 晉法을 근원으로 삼아 서법적으로 본질을 회복하자는 조선 고유의 서풍인 東國眞體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다. 石亭은 東國眞體를 法古創新의 발상으로 계승코자 하였다. 즉 도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서예창작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인문주의적 실천양식으로써 창작활동과 학문적 비평연구를 통해 盡善盡美의 독창적인 서예세계와 서예이론을 구축하였기에 그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Enlightenment』, Taehak publisher.

- [7] Do young Kim(2014), 『A Study on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of Calligraphy and painting of Seokjeong Lee, Jeongzic』, A doctoral dissertation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이 논문은 필자의 2014년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박사학위논문 『石亭 李定稷 書畫의 文化財의 價値 研究』 IV장. 「石亭 書藝의 예술론과 美學的 예술경지」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 References

- [1] Jeongzic Lee, 『Seokjeong Lee Jeongzic Yugo』 (석정이정직유고)
- [2] \_\_\_\_\_, 『SonghaJinjeok』 (송하진적)
- [3] \_\_\_\_\_, 『WonkyoJinjeok』 (원교진적)
- [4] \_\_\_\_\_, 『ChangamSeochub』 (창암서첩)
- [5] \_\_\_\_\_, 『Hyangkwangchub』 (향광첩)
- [6] Sa whae Gu,(2013), 『A study Literary theory of Seokjeong LeeJeongzic on Modern